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제318호 2025년 2월 2일(다해) 주님 봉헌 축일(축성 생활의 날)



<1979.01.29. 청기공소>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요한 15,1)

<안동 가톨릭농민회의 어제와 오늘>: 안동교구 사제단 영양군 청기면 감자 피해 현장 답사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 3,1-4

화답송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히브리서 2,14-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22-40

영성체송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홍보·전산
오픈카톡

봉헌생활이 꼭 수도자의 길만은 아닙니다.

풍기 본당 주임
김학록 안셀모 신부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모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치르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신 것을 기념하는 이날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대전에 바친 수도자들을 비롯한 봉헌생활자들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다양한 봉헌생활의 케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 먼저 성모 마리아는 성자의 어머니가 되라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이 꿈꾸었던 미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종으로서, 성자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요청되는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며 사셨습니다.

㉡ 요셉 성인은 약혼자의 임신으로 당황하며 파혼을 결심했으나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성가정의 가장이 되어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성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 시메온의 인생행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의롭고 독실하게 성령 안에 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 뵈울 것을 오랜 세월 간절히 기다려 온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소망했던 대로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송합니다.

㉣ 한나는 예언자로 소개가 됩니다. 혼인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청상(靑孀)과부가 됩니다. 한자를 뜯어보면 여자가 청춘에 혼자된, 청춘에 서리를 맞다는 뜻입니다.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겨오다가 극적으로 아기 예수님과 상봉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서 보듯 하느님께 봉헌하는 모습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각기 상이한 형태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충실히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이한 방식으로

불러주신 소명에 불만을 갖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여 낙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하느님과 자신이 받아들인 소명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하느님께 인정받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고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봉헌생활자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봉헌생활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먼저 평생을 하느님께 봉헌할 것을 서약하고 청춘을 바쳐 수도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상수도회와 활동수도회의 일원이 되어 일평생 봉헌생활을 합니다.

수도회 외에도 봉헌생활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결혼생활을 하다가 수도회의 제3회원이 되어 수도회의 정신을 따라 봉헌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재속회(在俗會)도 있습니다. 재속회는 세속에서 살면서 각자의 직업을 갖고 사도직활동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외 독신으로 살면서 혹은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봉헌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소선교사들이 있고, 해외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도시빈민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정의·평화와 생명·환경 살리기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긴 세월 수인사목이나 사회복지시설들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봉헌생활의 길은 수도생활만은 아닙니다. 지금 나의 환경에서 찾아갈 수 있는 봉헌생활을 시메온과 한나의 삶에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수도회외의 여러 봉헌생활들의 모습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봉헌생활의 길을 찾아 거기에 충실하게 살 수 있다면, 분명 더 행복한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봉헌생활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복음의 시메온과 한나처럼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동교구 사제단 영양군 청기면 감자 피해 현장 답사(1979.01.29. 청기공소)

표지 사진 설명

1978년 영양군 청기면 농민들은 군과 농협에서 알선한 감자씨(시마바리)가 싹이 나지 않자, 가톨릭농민회 청기 분회장이었던 오원춘이 '감자씨 피해 보상운동'을 주도하여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79년 오원춘은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가 보름 만에 나타나 영양 본당 신부를 찾아가 자기가 기관원들에게 납치되어 포항시와 울릉군 지역으로 끌려다니면서 모진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두봉 주교는 정호경 신부(안동교구 사목국장)에게 이 사건을 조사하게 하여 안동교구 신부들로 꾸려진 대책위원회가 '짓밟히는 농민운동'이라는 문건을 제작,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통해 79년 7월 17일 전국에 이 사건을 폭로하였습니다. 경찰이 정호경 신부를 강제 연행 및 구속하고, 오원춘을 긴급조치 위반죄로 구속하자 이 사건은 전국적 정치 투쟁으로 확산되었고 안동교구는 기도회와 가두촛불시위로 독재정권의 광기에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가톨릭농민회는 극심한 탄압을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한국농민운동의 질적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저항이 어려웠던 시기에 단결과 협력으로 사회 운동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교회의 일치와 선교에도 큰 몫을 함으로써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025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에 따라 가톨릭 농민회의 주요 사건과 생명 농업의 생산(분회)-판매(우리농 매장)-소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다룹니다.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토대로 목상글을 담습니다.

호야와 두봉 주교님 (1)

허태임 플로라

식물분류학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연구원
《허태임의 초록목록(김영사, 2022)》을 썼다.

초가을이었고 주교님댁 창이 큰 거실에 한낮의 별이 쏟아져 들어오던 날이었다. 두봉 주교님은 당신이 키우던 화분 하나를 거의 맡기다시피 내게 안겨 주셨다.

호야네요.

나는 열결에 화분을 받으며 반사적으로 이름을 말했다. 지금 내가 건네받은 식물이 호야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그 짧은 순간에 하면서.

아, 그 식물 이름이 호야예요? 하하하.

두봉 주교님은 자주 웃으시고 크게 웃으신다. 주교님 옆에 있다 보면 덩달아 행복해진다. 덩달아 사랑에 빠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이재각

하느님의 사랑은 식물에도 공평하게 깃들어 있어요. 아름답죠. 참으로 오묘하죠.

이렇게 말하는 1929년생 노인이 참 맑고 말도 안 되게 생기롭다. 두봉 주교님은 프랑스 사람이다. 1954년, 스물다섯에 한국에 왔다.

배를 타고 왔어요. 두 달이 넘게 걸렸어요. 비행기는커녕 한국으로 곧장 오는 배도 없었어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출발한 배가 일본 요코하마까지 한 달, 요코하마에 도착했는데 당장 한국행 배가 없어 3주를 더 기다렸다가 어느 화물선이 인천으로 간다고 해서 탔어요. 그런데 인천으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경남 마산과 부산을 들렀다가 다시 일본 오키나와를 돌아 인천에 도착하더군요. 그때가 12월 중순이었는데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호야도 타국으로 가던 맨 처음에는 배를 오래 탔을 것이다. 호야는 동남아시아가 고향인 열대식물. 동인도회사를 기지로 아시아 식물 탐사에 나선 유럽 학자들에게 18세기 후반에 발견되어 영국으로 건너갔다. 영국 북부 노섬벌랜드에서 호야를 연구하고 널리 알린 정원사이자 식물학자 토마스 호이(Thomas Hoy, 1750-1822)를 기리며 붙인 식물학적 속명(屬名)이 호야(Hoya)다.

내 이름은 산봉우리에서 노래하는 두견새라는 뜻, 두봉(杜峰)이에요. 프랑스 이름은 르네 뒤퐁(Rene Dupont)인데 한국식 발음에 맞게 지었어요. 무슨 비누 이름이랑 같은 거 아니냐고 물

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하하.

우리 땅에 정착한 지 65년째 되던 2019년에 주교님은 한국 국적을 얻었다. 지금은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서 혼자 사신다. 때문에 ‘두봉 천주교회’가 적힌 집이다.

주교님께 들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은 참 가난했다고. 건물이고 뭐고 부서지고 망가진 게 많았다고. 너무 많은 사람이 군복을 입고 다녔다고. 한국에 도착한 이듬해 대전 대흥동 성당에서 보좌 신부를 시작으로 십여 년간 대전에 머무셨다 한다. 그때가 한국어를 깊이 익힐 수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고.

두봉 주교님의 안동 지역에서의 생활은 1969년 5월에 시작되었다. 그전에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속해 있던 경상북도 북부 지역 11개 시와 군이 안동교구로 새롭게 설정되면서 초대 주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당신의 소임이라며 주교가 되자마자 먼저 이룬 건 여성을 위한 교육 기관 설립. 학교 법인 상지학원을 세우고 산하에 한국 최초의 전문대학인 상지전문학교(현 가톨릭상지대학교)와 상지여자중학교와 상지여자상업고등학교(현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 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농민들 속에 살며 농민 인권을 위해 무척 애쓰셨다. 농민들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회는 약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들을 돕는 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안동에서 가톨릭농민회를 결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명 ‘오원춘 사건’이 터졌다. 불량 씨감자를 지역농협이 농민들을 속여 팔았고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가톨릭 농민회와 연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며 투쟁한 사건. 주동자 격이던 농부 오원춘의 누명을 해명하던 주교님에게 당시 박정희 정부는 우리나라를 떠나라는 강제 추방령을 내렸다. 그 소식을 들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주교님과 김수환 추기경을 서둘러 바티칸으로 불렀다. 폴란드 출신의 교황은 고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은 적 있다며 두봉 주교님과 농민의 편을 들었다. 일이 마무리된 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사망하면서다. 그때를 회상하던 주교님은 웃음을 거둔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폭력은 결코 양심을 앞설 수 없습니다. 두려운 건 폭력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지요.

두봉 주교님 이야기를 4주에 걸쳐 전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세례자 요한 5

함신부가 들려주는
성경 인물 이야기



이것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사악이라 하여라.” (창세 17,19) 곧, 이사악과 더불어 하느님의 옛 백성이 태동하였듯이, 요한과 함께 새 백성이 탄생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종말론적 공동체, 곧 교회 말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요한의 운명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키서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말라 3,23). 하지만 이것이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로봇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한은 태어나서 줄곧 부모로부터 ‘요한아, 너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단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들이 부모의 바람에 순종하지는 않죠.



교구장 동정



2월 5일 선교사목주교위원회
2월 6일 참사회의

축하합니다 서품축일

2월 2일 조상래 다미아노 신부

교 구

수취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2. 7(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대 상: 함께 하실 분은 누구나

구역장·반장 교육(문경 지구)

일 시: 2. 8(토) 13:30~ 17:00

장 소: 점촌동 본당

준비물: 필기도구, 개인 물통

참가비: 1인 5,000원

신청 마감: 1. 30(목)

2월 열린성경 강좌

일 시: 2. 10(월) 19:30~ 21:30

장 소: 갈전 마티아 본당

준비물: 성경, 필기구, 참가비 5,000원

2025년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등록

대 상: 사제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등록 기간: 2. 12(수)까지

등록금: 1인 50,000원(1년)

문 의: 사목국 성소담당(054-858-3115)

2025년 초등부 복사단 연수

일 시: 2. 15(토) 14:00~ 16(주일) 16:00

장 소: 농은수련원

대 상: 첫영성체를 한 후 복사단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어린이

(2024학년 기준으로 6학년까지의

남,녀 어린이)

사목국 공소탐방

일 시: 2. 16(주일) 14:00

장 소: 영양 본당 청기공소

안동교구사회복지회 금성카리타스요양원

대 상: 장기요양등급판정 어르신

주 소: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404

입소 문의: 054-832-6400

제 단 체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대 상: 자신과 위기 영혼의 영적돌봄을
원하시는 분

장 소: 교구청(새봄 CPE센터)

기 간: 3. 19(수)~ 6월 말(12주간)

매주 수요일, 12:30~ 18:00

교육비: 40만원(자부담 30 + 교구지원 10)

문 의: 황영화 신부(010-5119-1158)

한국CPE협회 홈페이지: www.kacpe.com

수 도 회 · 피 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모임

일 시: 20:00~ 21:00 (매주 화요일)

대 상: 20~ 40세 미혼여성

문 의: 010-9353-1773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 (zoom) 프란치스코회

일 시: 3~ 11월(매 주 주일) 16:00~ 18:00

(120,000원 x 3회)

지 도: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예수회센터 봄학기 동영상 강좌/ 3월 개강

마태오의 예수 이야기:

토라, 제국, 하느님의 나라- 박상훈 신부
성경대학: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3- 송봉모 신부

꿈: 하느님의 귀한 선물!- 홍기령 교수

단테<신곡>지옥편:

배신과 우정- 김산춘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창세기 해설- 주원준 박사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 번째 길- 최지원 수녀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 청: 02-3276-7733, <https://centerjesuit.kr/>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 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 법: 우편 또는 이러닝(동영상) 성경 공부

접 수: <https://uus.pauline.or.kr/> 2.28(금) 마감

문 의: 02-944-0819~23, 010-5584-8945

상주가르멜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시자율모집: 1. 15(수)~ 2. 28(금)

주간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바이오제약과, 글로벌뷰티케어과

주말반학과: 사회복지과, 전기과,

전산세무회계과,

야간학과: 경영과, 사회복지과,

하이브리드자동차과,

노인건강지도과

입학문의: 851-3021 <https://www.csj.ac.kr>

치매 심리정서 전문가 무료 교육

일 정: 2. 15(토), 22(토) (총 2일 10시간)

시 간: 09:00~ 14:30 (중식 제공)

내 용: 치매의 이해, 증상, 평가 및 예방,

치매환자 케어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식품가공 개발과정 무료 교육

일 정: 2. 15(토), 22(토) (총 2일 10시간)

시 간: 09:00~ 14:30 (중식 제공)

내 용: 식품 트렌드 분석, 간편가정식

(HMR)제품에 대한 이해 및 실습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산후관리사 취업연계

일 정: 3. 4(화)~ 4. 4(금) (총 23일 138시간)

시 간: 09:30~ 16:00 (월-금)/ 중식제공

대 상: 미취업자(취업가능자)

혜 택: 무료교육, 훈련수당 20만, 취업연계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8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 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 용: 가톨릭 신학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 접수: 11. 11(월)~ 2. 14(금)

문 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